고흥군 '도심항공교통 산업' 거점 도약…청사진 제시

'UAM 중장기 로드맵' 용역 완료
남해안 관광벨트 연계 항로 설계
지역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 구축
기존 항공 인프라 시너지·집적화

고흥군이 도심항공교통(UAM) 산업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9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고흥형 도심항공교통(UAM) 중장기 로드맵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3개 전략사업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앞서 군은 친환경·저소음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도심항공교통 산업을 지역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지난해 6월부터 지역 맞춤형 육성 방안과 중장기 계획 수립, 신규 전략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남해안 관광벨트와 연계한 광역 UAM 노선 설계 및 고흥 UAM 하늘길 투어 △지역 상급종합병원 연계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 구축 △UAM MRO(유지·보수·운영)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3개 전략사업이 제안됐다.

먼저 남해안 관광벨트와 연계한 광역 UAM 노선은 고흥을 기반으로 전남 서부권의 목포·신안에서부터 경남권의 고성·통영까지를 아우르는 초광역 관광 항로다. 이와 함께 제안된 고흥 UAM 하늘길 투어는 팔영산과 금산 해안경관, 봉래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등 고흥의 주요 관광지를 조망하는 항로를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사업인 지역 상급종합병원 연계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 구축은 전남권 응급의료 전용 헬기 인계점과 연계해 환자를 최단 시간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는 체계가 제시됐다.

이어 UAM MRO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는 고흥만에 조성된 UAM 실증단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등 기존 항공 인프라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집적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국토교통부 시범운용구역 지정과 지역시범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국내 최초의 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가 있는 고흥군은 지난해 '친환경 항공기용 전기추진시스템 기반구축', '미래비행체 비행안전성능 모니터링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첨단 항공산업의 기반도 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으로 지정받아 도심항공교통 산업 선두 주자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고흥군은 이번 용역 결과를 전남도의 미래항공교통(AAM) 종합계획에도 반영해 고흥을 중심으로 도심항공교통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고흥과 남해안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UAM 관광과 상급종합병원 접근성을 개선하는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 UAM 실증단지와 연계한 MRO 산업단지 구축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핵심 전략사업"이라며 "고흥이 UAM 산업의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내일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개최
여수시 미평 봉화산 산림욕장서

여수시는 11일 미평 봉화산 산림욕장에서 '2025년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걷기 실천을 통해 치매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 극복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준비됐다.

행사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무장애나눔길 1.5㎞를 걷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당일 현장 접수로 선착순 마감되며, 여수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치매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치매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행사에 많은 분이 참여해 치매 극복에 동참하는 시간을 갖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보성군, 스마트 복지사업 공모 선정
읍면별 복지안전협의체 구성

보성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에 '복지에 안전을 더하다! 스마트 온(ON)마을 600사업'이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한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를 현장 중심의 복지·안전 서비스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관내 12개 읍면에 복지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사회 중심의 자율적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공모사업비 4000만원을 활용, 태양광 LED(엘이디) 설치, 스마트 안전 지팡이 지원, 전동차 야광 안전 덮개 지원 등 지역 맞춤형 안전 관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주거지 안전 점검 및 생활 불편 개선과 '남도사랑봉사단'의 생활안전키트 지원, '여성자원봉사회'의 안전한 건강 먹거리 제공 등 기존 복지 인적 안전망과의 연계를 통해 촘촘한 통합 복지·안전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공모사업으로 안전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생활밀착형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보성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양종수 기자

지난 4일 광양시 진월면 힐링팜 딸기농장에서 중마동 내친구어린이집 원생들이 딸기 수확 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 진월면 힐링팜 "딸기 따며 웃음꽃도 피워요"

광양시는 최근 진월면에 위치한 힐링팜 딸기농장에 중마동 내친구어린이집 원생 60여명이 방문해 딸기 수확 체험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농장 주인 함태수씨는 어린이들에게 직접 딸기의 성장 과정을 설명했으며 아이들은 직접 딸기를 따고, 맛보면서 농업의 가치를 체험했다.

힐링팜은 첨단 기술이 접목된 3연동 스마트팜 하우스로 구성돼 있으며 두 동은 재배 시설로, 나머지 한 동은 부대시설과 체험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재배동에는 2단 베드 시스템을 도입해 어린이들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딸기를 수확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함씨는 "딸기 수확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자연의 소중함, 스마트팜의 첨단 기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스마트팜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섬진강 청정 시설원예단지가 있는 진월면에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고흥군, 대표 야간 볼거리 '녹동항 드론쇼' 개막

12일 오후 8시 첫 공연
버스킹 공연 등 볼거리

고흥군의 대표 야간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은 '녹동항 드론쇼'가 오는 12일 오후 8시 녹동항 바다정원 일원에서 개막한다.

9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개막식은 버스킹 공연을 시작으로 개막행사, 드론쇼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드론쇼는 2025년 개막을 기념해 총 2025대의 드론이 동원된다. 고흥의 3대 발전 전략과 3대 교통인프라를 콘텐츠로 녹동항 밤하늘을 화려하게 장식할 계획이다. 200대의 드론에 불꽃을 부착한 색다른 연출을 통해 한층 더 풍성한 볼거리도 제공한다.

드론쇼가 펼쳐지는 녹동항 바다정원 일원은 맛있는 먹거리로도 유명한 만큼 대표 음식인 장어구이와 장어탕을 비롯해 계절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포장마차와 가벼운 간식을 즐길 수 있는 푸드트럭도 운영된다.

군은 역대 최대 규모의 드론쇼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고흥경찰서와 모범운전자회의 협조를 받아 교통을 통제하고, 지역 사회단체와 협력해 안전관리와 질서 유지에 힘쓸 예정이다.

올해 드론쇼는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은 녹동항 바다정원에서 개최하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고흥군청 앞 군민광장에서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녹동항 드론쇼는 고흥군의 관광 히트 상품이다. 더욱 특별한 구성으로 많은 관광객이 고흥을 찾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올해부터는 매월 한 차례 고흥읍에서도 드론쇼와 버스킹 공연을 개최해 군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강우, 강풍 등 기상 여건에 따라 드론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녹동항 드론쇼 홈페이지(http://nokdongdrone.co.kr)나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공지사항을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벼 병해충 공동 항공방제 지원
여수시, 18일까지 접수

여수시가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과 경영비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벼 생산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병해충 공동항공(드론)방제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자체와 농협이 항공(드론)방제비와 약제를 지원해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오는 7~8월 중 1회 추진된다.

드론 방제는 대규모 면적에 단기간 방제약을 뿌리는 방식으로 진행돼 노동력이 절감되고 장마 이후 발생하기 쉬운 도열병, 이삭누룩병, 흑명나방 등에 효과가 크다.

지원 대상은 친환경 재배 농가를 제외한 3ha 이상의 일반재배 단지(마을)로, 1ha당 농가 자부담은 4만2000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기술보급과(061-659-4492)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드론을 통해 항공에서 방제약제를 분사하기 때문에 친환경, 축사(양봉), 양식장, 타 작물 인접 필지 등은 비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제외된다"며 "사전에 농지 인접지를 확인하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도심 속 다채로운 문화 행사 펼쳐
순천문화재단

(재)순천문화재단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매월 둘째 주 또는 넷째 주에 순천부 읍성 남문터 광장 및 순천시 내에서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순천부 읍성 남문터 광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일상에서 쉽게 생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생활 문화예술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첫 번째로 이뤄질 프로그램은 '다함께 즐기는, 광장 문화 콘서트 에어 놀이터'로,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오는 12일 토요일 오후 1시 순천부 읍성 남문터 광장에서 진행된다.

댄스팀 MAF의 화려한 댄스 공연을 시작으로, 아이들이 신나게 뛰놀 수 있는 각양각색의 에어바운스와 세계 30여개국 180개 도시를 순회하며 마술공연을 진행한 김광중의 코미디 마술과 서커스 쇼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한마음 명랑운동회', 'K-POP 댄스 챌린지', '남문터 물놀이 대잔치', '민속놀이 한마당', '가을밤의 광장 극장', '남문터 한마당' 등 다양한 행사들이 매월 둘째 주·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 및 일정은 순천문화재단 누리집(www.cfsc.or.kr) 및 재단 SNS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문의는 자원운영팀(061-746-2907)으로 하면 된다.

순천문화재단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남문터 광장 행사 프로그램으로 생활 문화를 즐기며 문화로 채우는 토요일의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